승가 기본소득, '기본수행권 보장'서 시작

유승무 교수, 4월 28일 국제컨퍼런스서 발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사진>가 기본소득을 한국불교 승가에 적용한 '기본 수행권보장제도'를 제안해 주목된다.

유승무 교수는 4월 28일 경기도가 주최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주제세션에서 불교 측 대표발제자로 참석해 '승가형 기본소득으로서 기본 수행권 보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승무 교수는 발제문에서 기본소득을 한국불교, 특히 승가에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승가는 불제자들의 공동체로 불교를 대표할 뿐 아니라 기본소득과 직접 연관해서도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한국불교에 적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실험실이다. 반대로 이 때문에 사적소유를 전제한 소득 개념을 그대로 승가에 적용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유 교수는 기본적인 전제로 "불교, 특히 승가의 경우 '수행자다움' '스님다움'이라는 조건이 갖춰질 때 생계의 문제가 일부 해결된다는 점에서 소득의 원천은 수행이다"며 "기본소득 개념을 기본수행권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불교의 승가가 실제로 모든 출가자들에게 기본수행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에게 기본 수행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필요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만약 실행된다면 기본수행권 보장의 일부 재원이 되기 때문에 물질적 보탬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기본수행권 보장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설계도'를 제시하고 △명칭 △원칙 △지원금액 △재원 마련방법 △제도화의 추가적 조건 △제도화의 효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유 교수는 승가형 기본소득제를 기본수행권 보장제도로 칭하고



종교특별세션 불교 대표로 참석
기본수행권보장제도 제안 '눈길'
기본소득 4대 원칙 그대로 반영
승가 특수성 맞게 원칙 등 제안

기본소득제의 4대 원칙인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 모든 구성원에게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개개인이 기본적인 수행생활에 충분할 정도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보시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후의무를 규정했다. 이는 승가구성원자격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사안으로, 계율 준수의 의무, 법보시의 의무, 자자 및 포살 참여, 수행이력 증명서 제출의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금액은 수행자 1인당 월 25만 원, 연 30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한다. 우리사회에 기본소득이 전면시행될 경우 현재 기준으로 매월 30~50만 원의 수행권보장 보시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재원 마련방법이다. 기본소득분을 제외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유 교수는 △세금의 형태인 '사찰 점유비' 납부 △전국 수말사급 이상 규모의 사찰의 '규모사찰 점유비' 납부 △'기본수행권 보장 보시함'을 통한 모연 △관광사찰입장료 일부를 기초수행지원금으로 편입 △일부 출가자의 재보시 등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또 기본수행권보장제도가 종단 분담금과는 다른 수행지원 보시금이며 용주사 등 일부 교구에서 이미 일종의 수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행단위는 종단이 아니라 교구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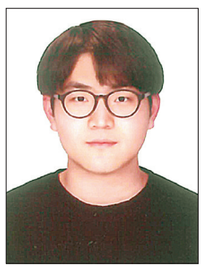
이를 통해 불교계는 공유재로서 삼보 정재의 본래 의미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으며 승가의 문화 또한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 교수는 예측했다. 원융살림의 인식확산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이 대표적이다. 또 승가내 불평등과 사유화, 세속화, 범계 등 부정적인 추세를 일시에 개선하고 승가 공동체성과 화합성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교수는 "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오직 초발심의 자세로 수행에만 전념하는 출가자의 숫자가 늘어나 우수한 출가자가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질 것"이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불교가 사회변동의 추세를 받아들여 그 경험을 사회로 환원함으로써 승가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화 과정은 당연히 크고 작은 쟁점이 수반될 것이지만, 기본수행권보장제는 교리적 정당성과 역사적 정당성,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요청에도 부합한다"며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찰해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승가형 기본소득제로서 기본수행권보장제도가 명실상부한 제도적 장치로 정착될 수 있길 꿈꿔본다"고 기대했다.

대불련 제59년차 중앙회장 선출돼

비대위서 정식 체제로 전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4월 27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청담 안현민 서울지부장<사진>을 제59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를 종료했다. 안현민 59년차 중앙회장은 그동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왔다.

59년차 대불련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안현민 서울지부장은 동국대 경제학과 17학번으로 동국대 불교동아리에 입회해 활동해 왔다. 2020년 동국대 불교동아리 회장을 맡았으며, 2021년부터 대불련 서울지부장도 함께 맡고 있다.

안현민 신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생 청년 불자 포교와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법우들에게 고맙다. 앞으로 대학생 포교를 위해 회장으로 진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대불청 1백주년 만해평화센터 완공 초읽기

서울 돈암동에 위치, 불교문화공간 활용 예정



대한불교청년회 창립 100주년 기념 '만해평화센터' 실내 법당 조감도.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건립을 추진 중인 만해평화센터가 불사 성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불청은 최근 5월 중으로 만해평화센터 공사를 마무리 하고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조율 중으로 부처님오신날 후인 5월 하순경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불청 만해평화센터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미래 청년포교를 위한 보금자리로 마련되는 곳으로 서울 돈암동에 위치하고 있다. 약 4억여 원의 대불청 회원들의 불사동참이 이뤄졌다.

대불청은 만해평화센터 불사를 위해 백만불사 오백나한 초청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불청은 "만해평화센터는 법당과 함께 대한불교청년회 100년 자료를 모으는 서고 등이 들어서며 불교문화 홍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해평화센터 건립 후 전법회관에 위치한 사무실은 행정공간으로 기능을 유지한다.

한편, 대불청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하철 역사 등달기, 연등회 호기놀이 등을 진행한다. 또 올해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사업과 8월 15일 만해백일장 등도 준비 중에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로 주거환경 개선, 조계사가 책임진다

가피봉사단 집수리 봉사
'행복 나눔 집수리' 진행
2가구 장판 벽지 교체해



행복나눔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조계사 가피봉사단원들.

"내가 이 집서 8년 사는 동안 벽지 한 번을 안 발랐어. 누런 벽지가 죄다 떨어지고 일어나서 가루도 날리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깨끗해진 흰 벽지를 보니 참 좋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나 좋으라고 너무 고생을 해서 어쩐대."

이옥분(88)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조계사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이 낡고 빛바랜 벽지와 장판을 싹 걷어내고 마치 새 집과 같은 깨끗한 공간을 선물해 줬기 때문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 가피봉사단 집수리팀은 4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뒷골목에 위치한 이옥분 할머니의 집에서 도배·장판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내부 정리부터 곰팡이 제거, 기존 벽지 제거에 이은 새 벽지 도배, 장판 교체까지, 집수리팀장의 지휘에 따라 봉사단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화재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증정을 시작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사용법 등 간단한 교육도 이어졌다.

이날 작업은 조계사 가피봉사단의 '행복나눔집수리-가가호호 포근한 우리집' 사업의 일환이다. 취약계층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새롭게 교체해, 보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진행해 왔다.

서울시 공모 선정사업으로 종로구청과 성북구청, 한부모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행복나눔집수리'를 통해 변신한 집만 20여 곳에 달한다.

조계사 포교사회국장 상범 스님은 "오늘 이옥분 할머니의 공간은 도배·장판 교체지만, 싱크대 교체, 변기 교체 등 매번 대상가정에 가장 열악하고 필요한 곳을 수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집수리봉사단 팀장님들이 본업을 할 시간을 빼서 집수리 봉사를 해주신 덕분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의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있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뉴미디어 전법사 크리에이터 선발

조계종 포교원 5명 추가 공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새로운 불교 크리에이터 5명을 추가로 선발해 뉴미디어 상에 불교콘텐츠를 확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조계종 포교원은 4월 28일 불교 크리에이터 2기 공모를 통해 최우수 크리에이터 2명과 우수 크리에이터 3명 등 모두 5명을 선발해, 창작지원금 총 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우수 크리에이터는 영상 콘텐츠 '마음을 그리는 붓'의 장세경 씨와 웹툰 콘텐츠 '만근화'의 이재영 씨 등 2명이, 우수 크리에이터는 이연수·자홍 스님·장수현 씨 등 3명이 선발됐다.

포교원은 전문가 및 교무위원 심사를 거쳐 최우수 크리에이터 2명과 우수 크리에이터 3명으로 나누어 최종 선발했다. 한편, 포교원은 5월 초에 불교 크리에이터 2기 위촉식을 열고 이후 창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